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0권 제6호, 2008
<연구논문>

J. Kor. Soc. Cloth. Ind.
Vol. 10, No. 6, pp.955-965(2008)

한국과 미국 중년 여성의 체형과 의복디자인에 따른 시각효과(I)
- 신체적 시각효과를 중심으로 -

박순천[1] · Marian O'Rourke-Kaplan[2]
1) 조선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2) University of North Texas, The Professor of Fashion Design Dept.

The Visual Effect by Physical and Clothes Design of the Mid-aged Korean and American Women(I)
- Focusing on the Physical Visual Effects -

Soon-Chun Park[1] and Marian O'Rourke-Kaplan[2]
1) Dept. of Fashion Design, Chosun University, Gwangju, South Korea
2) Interim Associate Dean of Academic and Student Affairs, School of Visual Arts University of North Texas, U.S.A.

Abstact : This study used the method that measure the participants' responds on the experiment, and the measurement means is a survey. The primary factor plan is 5x2x3x2. The independent variable are neckline(5), trousers or skirt style(2), somatotype(3), culture(2), and the dependant variables are physical visual effect and the favor of clothe design. In cases of Korean, thin somatotype had better were V-neckline suit for looking shoulders wide because they have too narrow shoulders, and were pants suit than skirt suit for looking pelvis major. thin somatotype person who wants to look tall should wear china collar or tailored collar suit with pants. If she wears round neckline suit with skirt, the lower part of body and the height look tall. Pants suit with V neckline and skirt suit with china collar make standard somatotype looked having wide shoulders. Standard somatotype person with wide shoulder should avoid this style. The size of waist and pelvis was looked thick in round neckline and was looked thin in V neckline. So it will be better to find the right suit for one's weakness. Obesity had better wear V neckline to look neck slim and not wear stand and tailored collar. When obesity person wears pants suit, she is looked having slim waist than skirt suit.

In case of American, thin somatotype in pants suit looks much taller than in skirt suit when she wears round neckline and stand collar suit. Standard somatotype has no difference because it is the basic shapes. Generally, it goes with all kinds of suit design. The belly and pelvis of American's obesity look fatter and bigger than Korean's obesity. The same with Korean, round neckline suit makes obesity looked belly and pelvis fat and big.

Key words : visual effect, physical, thin somatotype, standard somatotype, obesity

1. 서 론

의복은 자기 자신을 확립하고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되어지며, 신체 불만족을 보상해 주거나 또는 신체 만족과 불만족이 의복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그들의 자존심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Horn & Gurel, 1981). 중년기 여성들의 경우 신체적 변화와 자녀의 성장으로 인한 여유시간의 증가, 경제적 여유 등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의복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증가하게 된다. 그리하여 중년여성들은 체형변화를 극복하고 좋은 인상관리를 위하여 의복의 사용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더욱 적극적이므로, 중년여성들의 체형에 보다 효과적인 의복의 디자인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름다움에 대한 지각은 사회의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개인의 특징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즉 의복은 지각자의 성별, 인종, 성격, 가치관 등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므로(강혜원, 2003), 각 문화와 환경에 알맞게 의복을 디자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신체적 변화가 다양하고 의복에 대한 자신의 외모향상을 꾀하는 성향이 강한 세대이며 또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미국시장에서 백인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미국인의 체형을 비교하여 의복디자인에 따른 시각적 효과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국내패션산업은 환경의 변화와 소비자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글로벌브랜드들과 국내의 내셔널브랜드들과의 각축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미국시장 진

Corresponding author; Soon-Chun Park
Tel. +82-62-230-7717, Fax. +82-62-232-5756
E-mail: scp122@yahoo.co.kr

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미국소비자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의 급진적인 발달로 인해 타문화 간의 통신판매나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문화권내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복디자인의 비교분석이 필요시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각 체형에 적절한 시각적 효과를 내는 의복디자인을 한국과 미국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자극물은 중년여성이 외출복으로 가장 많이 착용하는 정장스타일의 수트였으며, 수트의 디자인은 네크라인과 하의스타일이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미국 중년여성의 체형 및 의복디자인에 따른 신체적 시각효과를 파악한다.

둘째, 한국과 미국 중년여성의 체형별 의복 디자인 선호도를 알아본다.

2. 이론적 배경

2.1. 의복디자인과 시각효과

의복지각은 기본적인 디자인 요소인 선, 색, 형태, 공간, 표면유형 등에 대한 개별의 지각이 하나로 통합된 전체적인 영상이며, 시 지각에 의해 좌우된다. 의복의 전체를 나타내는 디테일 등의 상호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다른 어떤 디자인 요소보다 감정과 정서 등을 전달하여 심리디자인 시각효과를 좌우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 수트의 네크라인 및 칼라, 하의 스타일에 따라 문화와 체형에 따라 지각되어지는 시각적 효과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인체에서 목은 의복을 걸치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의복 구조상 매우 중요한 부위이며, 목 부위의 의복디자인은 네크라인 변화와 칼라이다(김영자, 1998). 네크라인은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나타나는 분위기에 차이가 있어 이러한 조형적인 장식의 표현은 여러 가지의 표현방식에 따라 다양한 미적 효과로 나타난다. 네크라인은 실루엣, 소매, 소재, 장식과 함께 웨딩드레스의 전체적인 이미지 지각에 영향을 주는 의복단서였으며(이미연, 1999), 네크라인 선과 칼라의 크기는 얼굴크기에 영향을 주었다(이미정, 김준범, 이인자, 1997).

칼라는 디테일 요소의 하나로서 의복이미지 유형과 다른 의복디자인 요소와 관계되어 의복이미지가 평가되기도 한다(김일분, 유태순, 1999). 위은하, 김옥진(2000)은 중년여성이 테일러드칼라수트를 착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칼라의 수트보다 긍정정인 이미지의 효과를 얻는다고 하였다. 한정숙, 류숙희(1997)는 테일러드 칼라의 길이가 길수록, 단추 수가 적을수록, 여밈이 싱글일 때 품위성, 단정함, 평가성 요인이 더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조훈정, 손영미(2002)는 재킷의 네크라인, 칼라는 상반신 부위에 대한 시각적 효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스타일에 따른 의복이미지 평가에서 김효숙, 최창석, 이은실(2003)의 연구에서는 스커트수트 차림이 신체의 상반신 이미지 지각에 대해 바지수트 차림보다 어깨가 더 넓어 보이고 상반신과 가슴이 더 커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고, 엉덩이가 더 커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한편 바지수트가 스커트수트보다 다리가 길어 보이고 키가 더 커 보여 더 날씬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은하, 김옥진(2001)의 연구에서도 중년여성의 경우도 슬랙스가 스커트보다 하반신이 더 길어 보이는 효과와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반신의 경우 슬랙스가 스커트보다 상반신이 더 작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에서 네크라인과 칼라는 목 부위의 장식으로서 의복의 이미지 지각에 영향을 주었으며, 여성의 수트차림에서 바지와 스커트에 따라 신체의 시각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2.2. 중년여성의 체형 및 의복디자인

중년기는 신체, 생리, 심리, 사회적 변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특히 중년기의 여성에게는 생리적으로 출산을 마무리하고 폐경과 관련된 징후가 일어나며, 심리적 불안과 허전함으로 인해 자기보상을 추구하는 내부적, 외부적 충족감을 구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장휘숙, 1996).

중년기의 신체는 젊었을 때와 다른 체형실루엣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너비항목과 둘레항목이 증가하고 특히 허리와 배부위의 증가율이 커진다(권숙희, 1998). 또한 4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이 및 길이는 비교적 작지만 비만하여 어깨가 좁고 솟은 체형으로 하반신은 길이가 짧고 허리에서 대퇴부위까지는 가장 굵지만 무릎과 장딴지부위는 가장 가늘어지는 시기이다(정명숙, 1994). 중년여성의 경우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실제보다 자신이 대체로 더 비만하다고 인식하며(최유미, 손희순, 1997), 신체부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박종희, 류숙희, 2004).

의복착용과 관련하여 Lennon(1988; 1997)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신체적 매력을 되찾기 위하여 체형결점을 의식한 의복착용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위은하, 박우미(2003)의 연구에서도 중년여성은 어깨가 넓어 보이는 디자인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어깨가 좁아 보이는 상의나 하반신이 덮이는 발목길이의 스커트를 더 자주 착용하였다. 전체적으로 비만할수록 밀착되어 실루엣이 드러나거나 길이가 짧거나 노출이 심한 디자인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중년여성은 대체로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어떤 연령대보다도 좋은 인상관리와 연령증가에 따른 현저한 체형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의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만족스러운 외모를 위한 효과적인 의복차림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2.3. 문화와 체형

의복의 시각효과는 의복의 디자인과 체형에 따라 다르며, 이

러한 시각효과는 지각자의 성별, 인종, 성격, 가치관, 문화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강혜원, 2003).

체형에 대한 만족도 신체 각 부위의 형태에 대한 의식에서 문화 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박우미(2000)는 한국여성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미국여성에 비해 낮았으며, 한국여성은 굵은 넓적다리와 쳐진 엉덩이 그리고 손이 크다는 것에 불만족하다고 하였고, 미국여성은 단지 넓적다리가 굵은 것에 불만족하고 있어 문화 간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다름을 나타내었다. 또한 신체 각 부위의 형태에 대한 의식에서도 차이가 있어, 한국여성이 미국여성에 비해 가슴이 밋밋하고 어깨가 쳐져 있으며, 손가락이 굵고 아래배가 튀어나와 있다고 생각하여 미국여성이 한국여성에 비해 얼굴형이 계란형이라고 인지하였다.

남윤자, 이승희(2001)는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인지체형과 실제체형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 여대생이 목이 굵고 머리가 크며, 상반신이 길고 하반신이 짧은 체형의 경향을 보이고 있었고, 미국여대생은 볼륨감이 있고 하반신이 긴 체형으로 나타났다. 인지체형의 경우 미국여대생은 크기인식이 '보통이다'의 항목에 편중되어 나타났으나, 한국여대생의 경우는 신체둘레가 굵고 신체길이에 대해서는 짧고 가늘다고 인식하고 있어 문화 간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신체에 대한 각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인지되는 것은 의복의 시각효과에도 영향을 줄 것이므로 각 디자인변화에 따른 의복을 착용하고 체형의 변화에 따른 시각효과를 실험조사하여 각 문화권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복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연구방법

3.1. 측정도구

본 연구는 실험물에 대한 지각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실험연구방법으로, 측정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5×2×3×2의 요인설계로 독립변인은 네크라인(5), 하의스타일(2), 체형(3), 문화(2)이며, 종속변인은 신체적 시각효과와 의복디자인선호도였다.

3.1.1. 자극물

본 자극물의 의복디자인 선정은 중년여성들의 외출복으로 가장 많이 착용되어지는 정장의 사진을 디자인별로 수집한 후 내용분석법과 3차례의 예비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하였다.

중년여성의 평균체형을 대표하는 착의모델을 선정하기 위하여 싸이즈 코리아와 Size USA에 근거하여 유사한 신체치수를 지닌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중년여성 5명을 표집 후 계측하여 미국인과 한국인의 중년여성의 체형에 가장 근접한 신체치수를 가진 표준체형의평균치수인 키 155.2 cm, 몸무게 58.8 kg, 가슴둘레 88.6 cm, 허리둘레 79.4 cm, 엉덩이둘레 92.9 cm에 가장 근접하며 일반적인 체형과 평범한 이미지를 갖는 5명의 모델을 선정하여 그 중에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1명을 착의모델로 선정하였다.

Fig. 1. 자극물의 예

평가실험물은 각 디자인별로 제작하였는데, 실험의복에 사용된 소재의 색상은 중명도의 회색을 사용하였으며, 봄가을용 외출복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버딘 혼방소재(Wool 50%, poly 50%)를 사용하였다. 모델에게 입혀질 의복의 상의 디자인은 브이 네크라인, 라운드 네크라인, 스텐 칼라, 차이나 칼라, 테일러드 칼라의 5가지, 하의스타일은 스커트와 팬츠의 2가지, 체형은 마른형, 표준형, 비만형의 3가지로 전체 30개의 자극물을 제작하였으며, 의복디자인과 체형에 의한 자극물의 예는 Fig. 1과 같다.

본 연구를 위한 자극물은 표준체형의 모델에게 실험의복을 착용시킨 후 사진 촬영하여 제작하였다. 한편 자극물은 한국과 미국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므로 동양인 얼굴의 사용에 대한 오차를 제한하기 위해서 얼굴부위는 모자이크로 처리하였다. 마른체형과 비만체형 자극물은 촬영되어진 표준체형의 평가자극물을 컴퓨터 사진합성프로그램(Adobe Photoshop 9.5)을 이용하여 비만체형은 신체 치수의 키는 동일하고 가슴둘레 103 cm, 허리둘레 95 cm, 엉덩이둘레 105.2 cm로 하고 마른체형은 신체치수의 키는 동일하고 가슴둘레 75.6 cm, 허리둘레 61.5 cm, 엉덩이둘레 82.6 cm에 맞추어서 제작하였다. 자극물 크기는 12×22 cm이었으며, 다른 실험물에 시선을 빼앗기는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진자극물을 흰색 종이 위에 붙여 사용하였다.

3.1.2. 의미미분척도의 형용사쌍 선정

신체적 시각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형용사는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통해서 체형의 불만을 파악하고, 이러한 불만사항을 체형결함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총 7개의 문항으로 평가항목은 7점 의미미분척도를 사용하여 조사되었다. 사용되어진 문항은 '목이 가늘어 보이는-목이 굵어 보이는', '어깨가 좁아 보이는-어깨가 넓어 보이는', '허리가 가늘어 보이는-허리가 굵어 보이는', '배가 덜 드러나 보이는-배가 나와 보이는', '상반신이 작아 보이는-상반신이 커 보이는', '하반신이 짧아 보이는-하반신이 길어 보이는', '키가 작아 보이는-키가 커 보이는' 의 7개 문항이었다. 각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뒤쪽에 위치한 형용사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서 '목이 가늘

어 보이는-목이 굵어 보이는'의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목이 굵어 보인다는 것에 해당된다. 한편 의복디자인 선호도는 현재 피험자가 평가하고 있는 의복에 대한 선호정도를 평가하게 하였으며, 5단계 평점법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선호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였다.

3.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로 한국의 경우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40-59세 까지의 중년여성 160명, 미국은 텍사스주 달라스에 거주하는 40-59세의 백인 중년여성 160명을 대상으로 체형별로 편의표집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한국에서는 2006년 11-12월에 하였고 미국에서는 2007년 1-2월에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한 사람당 3장씩 응답하게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질문지를 제외하여 한국과 미국의 각 150명씩 총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서 연령을 보면 한국의 경우 40대 초반이 26.7%, 40대 후반이 39.3%, 50대 초반 16.0%, 50대 후반 8.0%였고, 미국의 경우 40대 초반이 26.7%, 40대 후반이 30.0%, 50대 초반 31.3%, 50대 후반 12.0%로 두 나라간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는 비슷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 되었으며, 통계분석방법은 빈도분석, 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일원변량분석, t-검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문화, 네크디자인, 하의스타일에 따른 체형별 신체적 시각효과의 차이

4.1.1. 문화, 네크디자인, 하의스타일에 따른 마른체형의 신체적 시각효과

마른체형에 대한 문화, 네크디자인, 하의스타일에 따른 신체적 시각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문화, 네크디자인, 하의스타일의 3개 독립변인에 의한 삼원상호작용과는 하반신 길이와 키에서 있었다. 네크디자인과 하의스타일의 2개 독립변인에 의한 이원상호작용효과는 허리굵기에서 있었다. 주효과는 문화에 따라서는 목굵기, 어깨너비, 배돌출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네크디자인에 따라서는 목굵기, 어깨너비, 배돌출, 골반크기에 차이가 있었다. 하의스타일에 따라서는 하반신 길이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목굵기에 대해서는 한국인이 미국인 보다 자극물의 목을 더 굵게 지각하였고, 칼라는 차이나칼라와 브이네크라인이 가장 굵게 지각되었다. 또한 팬츠가 스커트보다 목이 더 굵게 보이는

Table 1. 마른체형에 대한 문화, 네크디자인, 하의스타일에 따른 신체적 시각효과의 차이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df	목굵기	어깨 너비	허리굵기	배돌출	골반크기	하반신 길이	키
			F	F	F	F	F	F	F
문화(A)		1	6.32*	6.82**	.74	5.16*	2.00	.64	.01
네크디자인(B)		4	2.93*	5.38**	2.17	3.29*	2.92*	2.30	1.94
하의스타일(C)		1	19.52**	40.39**	5.54*	5.16*	10.18**	.76	7.64**
A×B		4	1.29	.58	1.73	.21	.34	1.53	.70
A×C		1	.37	.95	.62	.61	.72	.10	1.52
B×C		4	1.08	1.33	2.46*	1.68	1.03	1.62	.73
A×B×C		4	1.25	1.67	.10	1.18	1.74	3.08*	2.52*
독립변인		n	m	m	m	m	m	m	m
문화	한국	450	2.96	2.96	3.35	3.14	2.89	3.57	3.10
	미국	450	2.52	2.51	3.19	2.75	2.66	3.42	3.09
네크디자인	차이나CL	180	3.00(a)	3.07(ab)	3.55	3.27(a)	3.08	3.67	3.32
	라운드N	180	2.38(b)	2.55(bc)	3.02	2.67(bc)	2.60	3.65	2.95
	스탠CL	180	2.93(ab)	2.83(ab)	3.50	3.07(ab)	2.88	3.35	3.17
	테일러드CL	180	2.37(b)	2.07(c)	2.90	2.50(c)	2.32	3.00	2.68
	브이N	180	3.02(a)	3.17(a)	3.38	3.23(a)	3.00	3.82	3.35
하의스타일	팬츠	450	3.13	3.28	3.48	3.14	3.04	3.58	3.34
	스커트	450	2.35	2.19	3.06	2.75	2.51	3.41	2.85
합 계		900	2.74	2.74	3.27	2.95	2.78	3.50	3.09

*p<.05, **p<.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p<.05)
N=네크라인, CL=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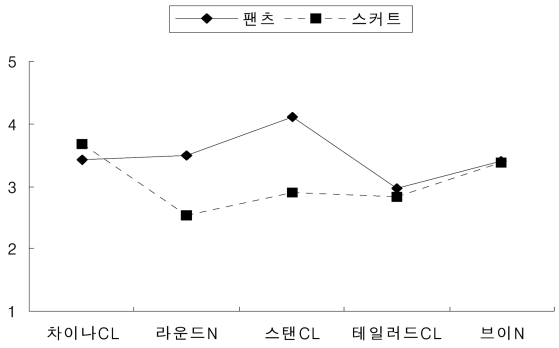

Fig. 2. 마른체형의 허리굵기에 대한 하의스타일, 네크디자인에 의한 이원상호작용형태

시각적 효과를 보였다. 어깨 너비의 경우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어깨를 더 넓게 보이는 것으로 지각하였고, 브이네크라인이 가장 어깨가 넓고 테일러드칼라 재킷이 가장 좁게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한편 팬츠가 스커트보다 어깨가 더 넓어 보이는 시각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허리굵기는 팬츠가 스커트보다 더 허리가 굵게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배돌출의 경우는 대체로 한국인이 미국인 보다 자극물을 더 배가 나와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테일러드칼라 재킷이 배가 가장 덜 나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팬츠가 스커트보다 더 배가 나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반크기의 경우는 테일러드칼라 재킷이 가장 골반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스커트가 팬츠보다 골반이 더 작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키 크기의 경우 팬츠가 스커트보다 키가 더 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는 마른체형의 허리굵기에 대한 하의스타일, 네크디자인에 의한 이원상호작용형태를 나타낸다. Fig. 2에서 보면 라운드네크라인과 스탠네크라인은 하의스타일에 따라 허리굵기가 다르게 지각되어 하의스타일이 스커트차림일 때가 팬츠차림일 때보다 더 허리가 가늘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과 Fig. 4는 마른체형의 하반신길이와 키에 대한 문화, 하의스타일, 네크디자인에 의한 삼원상호작용형태를 나타낸다. 한국인의 경우 하의 스타일에 따라 차이나칼라, 라운드네크라인, 테일러드칼라에서 차이를 보여, 차이나칼라와 테일러드칼라는 팬츠수트차림일 때 더 하반신이 길고 키가 커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라운드네크라인은 스커트 차림이 하반신이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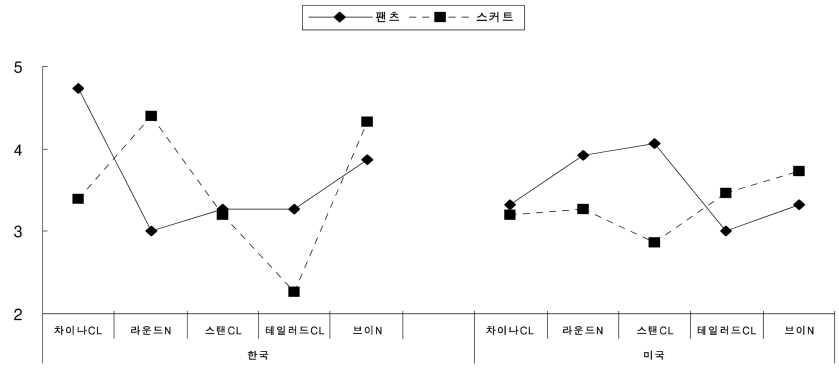

Fig. 3. 마른체형의 하반신길이에 대한 문화, 하의스타일, 네크디자인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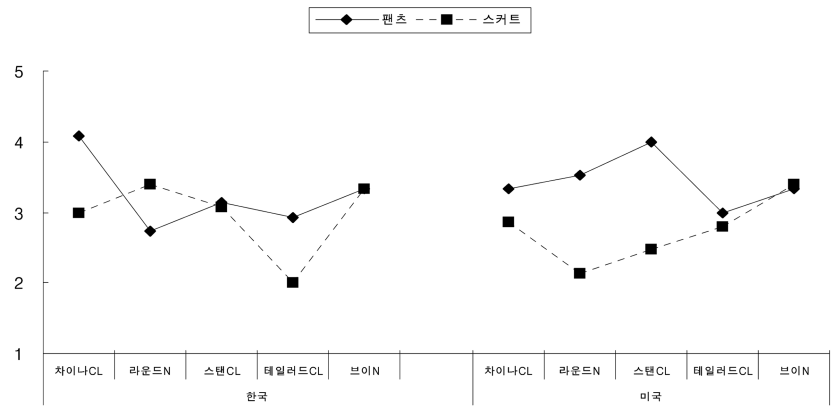

Fig. 4. 마른체형의 키에 대한 문화, 하의스타일, 네크디자인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Table 2. 표준체형에 대한 문화, 네크디자인, 하의스타일에 따른 신체적 시각효과의 차이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df	목굵기	어깨 너비	허리굵기	배돌출	골반크기	하반신 길이	키
			F	F	F	F	F	F	F
문화(A)		1	.72	1.08	.01	.19	2.82	2.78	1.61
네크디자인(B)		4	1.08	1.30	3.45**	3.97**	4.02**	2.64*	6.72**
하의스타일(C)		1	4.27*	.04	1.77	5.06*	1.12	.00	.43
A×B		4	.59	1.91	1.14	.07	.09	.72	.69
A×C		1	3.19	.000	1.54	.07	.78	1.07	.02
B×C		4	1.19	1.82	2.96*	1.18	2.51*	1.71	2.28
A×B×C		4	2.37	3.17*	1.27	1.32	.53	1.06	1.23
독립변인		n	m	m	m	m	m	m	m
문화	한국	450	4.55	4.81	4.83	4.53	4.31	4.55	4.49
	미국	450	4.43	4.67	4.85	4.46	4.56	4.79	4.69
네크 디자인	차이나CL	180	4.75	4.97	4.77(ab)	4.53(a)	4.18(bc)	4.75(ab)	4.82(a)
	라운드N	180	4.55	4.88	5.20(a)	4.80(a)	4.85(a)	5.02(a)	4.97(a)
	스탠CL	180	4.38	4.70	5.02(a)	4.70(a)	4.65(ab)	4.75(ab)	4.78(a)
	테일러드CL	180	4.45	4.60	4.85(ab)	4.52(a)	4.47(abc)	4.53(ab)	4.53(a)
	브이N	180	4.33	4.55	4.37(b)	3.92(b)	4.02(c)	4.30(b)	3.85(b)
하의 스타일	팬츠	450	4.64	4.73	4.74	4.32	4.35	4.67	4.64
	스커트	450	4.35	4.75	4.94	4.67	4.51	4.67	4.54
합 계		900	4.49	4.74	4.84	4.49	4.43	4.67	4.59

*p<.05, **p<.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p<.05)

고 키가 더 커 보이게 지각되었다. 한편 미국인의 경우는 하의스타일에 따라 라운드네크라인과 스탠칼라의 경우에서 하의길이와 키에서 차이가 있어, 팬츠수트차림이 스커트 수트차림보다 라운드네크라인과 스탠칼라일 때 더 하반신과 키가 더 커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4.1.2. 표준체형에 대한 문화, 네크디자인, 하의스타일에 따른 신체적 시각효과

표준체형에 대한 문화, 네크디자인, 하의스타일에 따른 신체적 시각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문화, 네크디자인, 하의스타일의 3개 독립변인에 의한 삼원상호작용과는 어깨너비에서 있었다. 네크디자인과 하의스타일의 2개 독립변인에 의한 이원상호작용효과는 허리굵기, 골반크기에서 있었다. 주효과는 문화에 따라서는 신체적 시각효과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네크디자인에 따라서는 허리굵기, 배돌출, 골반크기, 하반신 길이, 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하의스타일에 따라서는 목굵기, 배돌출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목 굵기에 대해서 팬츠가 스커트보다 목이 더 굵게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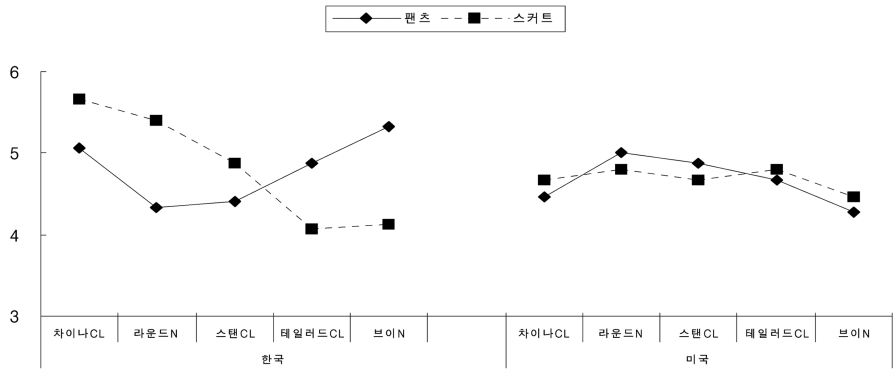

Fig. 5. 표준체형의 어깨너비에 대한 문화, 하의스타일, 네크디자인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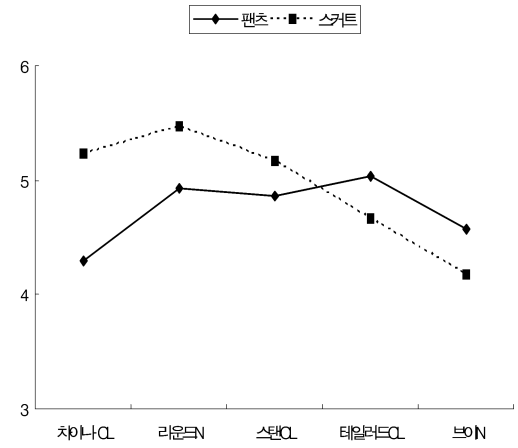

Fig. 6. 표준체형의 자극물에 대해 허리굵기에 대한 하의스타일 및 네크디자인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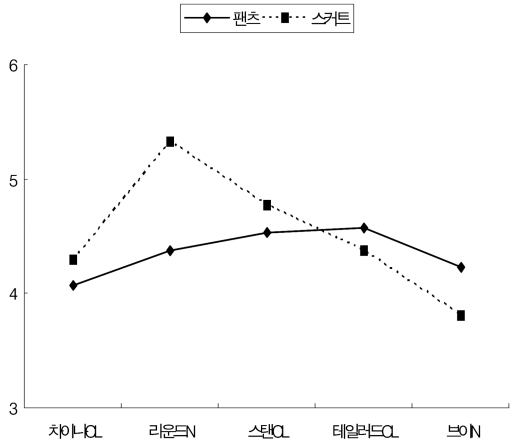

Fig. 7. 표준체형의 자극물에 대해 골반크기에 대한 하의스타일 및 네크디자인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허리굵기는 네크디자인의 경우 브이네크라인이 다른 네크라인에 비해 허리가 가장 가늘어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배 돌출의 경우 브이네크라인이 표준형의 경우는 가장 배가 가장 덜 나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커트가 팬츠보다 배가 더 나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반크기의 경우는 라운드네크라인이 가장 골반이 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브이네크라인이 가장 골반이 작아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하반신 길이와 키의 경우는 네크라인에서만 유의적 차이를 보였는데, 즉 브이네크라인이 가장 하반신 길고 키가 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는 표준체형의 자극물에 대해 어깨너비에 대한 문화, 하의스타일 및 네크디자인에 의한 상호작용형태를 나타낸다. 즉 한국인은 팬츠차림에서 브이네크라인을 가장 어깨가 넓게 보이는 것으로 지각하였고, 스커트차림에서는 차이나칼라를 어깨가 가장 넓게 보이는 것으로 지각하여 하의스타일에 따라 다르게 지각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미국인의 경우는 각 네크디자인이 팬츠와 스커트차림일 때 비슷하게 지각하였다. Fig. 6은 표준체형의 자극물에 대해 허리굵기에 대한 하의스타일 및 네크디자인에 의한 상호작용형태를 나타낸다. 즉 스커트의 경우 라운드네크라인일 때 가장 허리가 가장 굵은 것으로 지각되었고, 브이네크라인일 때 허리가 가장 가늘게 지각되었다. 한편 팬츠의 경우는 네크라인의 변화에 따른 허리굵기를 비슷하게 지각하였다. Fig. 7은 표준체형의 자극물에 대해 골반크기에 대한 하의스타일 및 네크디자인에 의한 상호작용형태를 나타낸다. 즉 팬츠는 네크라인의 변화에 따라 골반크기가 비슷하게 지각되었으나 스커트는 라운드네크라인일 때 가장 골반이 큰 것으로 지각되었고, 브이네크라인일 때 골반이 가장 작게 지각되어 하의스타일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었다.

4.1.3. 비만체형에 대한 문화, 네크디자인, 하의스타일에 따른 신체적 시각효과

비만체형에 대한 문화, 네크디자인, 하의스타일에 따른 신체적 시각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비만체형의 자극물에 대한 문화, 네크디자인, 하의스타일의 3개 독립변인에 의한 삼원상호작용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문화와 네크디자인의 2개 독립변인에 의한 이원상호작용효과는 하반신 길이에서 있었다. 네크디자인과 하의스타일의 2개 독립변인에 의한 이원상호작용효과는 배돌출에서 있었다. 주효과는 문화에 따라서는 어깨너비, 골반크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네크디자인에 따라서는 목굵기, 허리굵기, 골반크기, 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하의스타일에 따라서는 허리굵기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주효과를 살펴보면, 목 굵기는 브이네크라인일 때 가장 목이 가늘게 보였으며, 스탠칼라와 테일러드칼라일 때 가장 굵어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어깨너비의 경우는 문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미국이 한국보다 자극물의 어깨를 더 넓게 지각하였다. 허리 굵기는 차이나칼라와 브이네크라인일 때 가장 허리가 가늘게 보이는 것으로 지각하였고, 스커트보다 팬츠가 더 허리가 가늘어 보이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골반크기의 경우는 미국이 한국보다 골반을 자극물을 더 크게 지각하였고, 라운드네크라인의 수트의 자극물을 골반이 가장 큰 것으로 지각하였다. 키 크기는 네크라인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브이네크라인일 때 가장 작아보였다. Fig. 8은 비만체형의 자극물에 대해 배 돌출에 대한 하의스타일 및 네크디자인에 의한 상호작용형태를 나타낸다. 즉 팬츠일 경우는 스탠칼라일 때 가장 배가 덜 나와 보이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나, 스커트의 경우는 차이나칼라일 때 가장 배가 덜 나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9는 비만체형의 자극물에 대해 배 돌출에 대한 네크디자인 및 문화에 의한 상호작용형태를 나타낸다. 한국인의 경우는 네크라인의 변화에 따른 배가 나와 보이는 정도를 비교적 비슷하게 지각하였으나 미국인의 경우는 라운드네크라인일 때 가장 배가 나와 보인다고 지각하였다.

Table 3. 비만체형에 대한 문화, 네크디자인, 하의스타일에 따른 신체적 시각효과의 차이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df	목굵기	어깨 너비	허리굵기	배돌출	골반크기	하반신 길이	키
			F	F	F	F	F	F	F
문화(A)		1	.99	5.56*	2.31	1.44	4.48*	1.90	1.69
네크디자인(B)		4	2.61*	.83	3.32*	2.37	2.44*	1.07	3.57**
하의스타일(C)		1	.07	2.30	4.17*	1.09	1.08	.04	.80
A×B		4	1.70	1.41	1.08	2.05	1.07	2.44*	2.18
A×C		1	1.86	3.75	3.49	.66	.08	.40	.54
B×C		4	1.88	1.46	1.59	3.00*	1.88	2.28	2.15
A×B×C		4	1.54	.40	1.06	.66	.39	.57	.52
독립변인		n	m	m	m	m	m	m	m
문화	한국	450	5.49	5.77	5.78	5.39	5.55	5.46	5.60
	미국	450	5.67	6.14	6.01	5.59	5.89	5.71	5.81
네크디자인	차이나CL	180	5.47(ab)	5.77	5.57(b)	5.18	5.47(b)	5.42	5.63(ab)
	라운드N	180	5.43(ab)	6.10	6.20(a)	5.95	6.13(a)	5.87	6.02(a)
	스탠CL	180	5.85(a)	6.00	6.08(a)	5.53	5.80(ab)	5.73	6.00(a)
	테일러드CL	180	5.98(a)	6.10	6.08(a)	5.50	5.73(ab)	5.40	5.72(a)
	브이N	180	5.18(b)	5.80	5.55(b)	5.28	5.45(b)	5.50	5.17(b)
하의스타일	팬츠	450	5.56	5.83	5.74	5.40	5.63	5.60	5.63
	스커트	450	5.61	6.07	6.05	5.58	5.80	5.57	5.78
합 계		900	5.58	5.95	5.90	5.49	5.72	5.58	5.71

*p<.05, **p<.01,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p<.05)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년여성의 체형별 문화 및 의복디자인에 따른 시각효과를 유의한 차이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그 내용은 Table 4와 같다.

4.2. 한국과 미국의 의복디자인에 따른 체형별 선호도 차이

체형과 문화별로 의복디자인의 선호도의 차이를 전체 자극물에 따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자극물에 따라 파악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전체자극물의 선호도 차이를 Table 5에서 보면 먼저 마른체형의 경우 한국인은 라운드네크라인의 팬츠차림과 브이네크라인과 팬츠차림을 가장 선호하였고, 테일러드칼라에 팬츠차림을 가장 선호하지 않았다. 미국인의 경우는 테일러드칼라에 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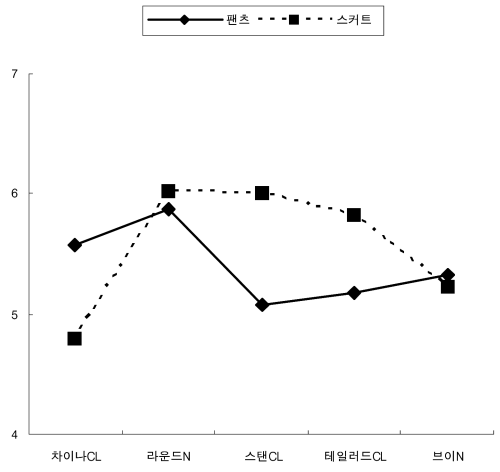

Fig. 8. 비만체형의 자극물에 대해 배 돌출에 대한 하의스타일 및 네크디자인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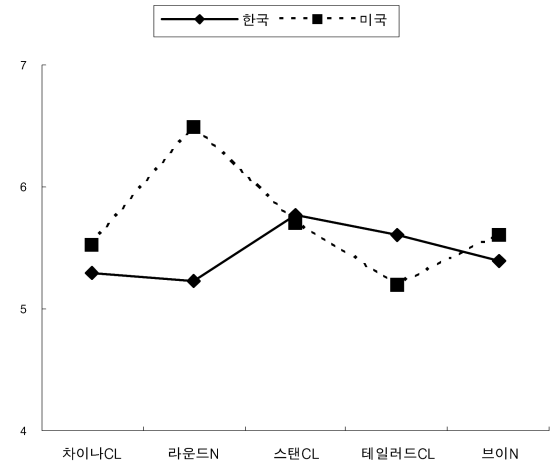

Fig. 9. 비만체형의 자극물에 대해 배 돌출에 대한 네크디자인 및 문화에 의한 상호작용형태

Table 4. 체형별 문화 및 의복디자인에 따른 시각효과

독립변인 \ 체형	마른형	표준형	비만형
문화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자극물을 목이 더 굵고 어깨가 넓으며 배가 나와 보이게 지각		·한국인보다 미국인이 자극물의 어깨가 더 넓어 보이는 것으로 평가
네크라인	·차이나칼라: 목이 굵어 보이거나 배가 나와 보는 시각효과 ·브이네크라인: 목이 굵고, 어깨가 넓으며 배가 나와 보이는 시각효과. ·테일러드칼라: 목이 가늘어 보이고 어깨가 좁아 보이며 배가 덜나와 보이는 시각효과.	· 라운드네크라인/스탠칼라: 대체로 허리가 굵고 배가 나와 보이며 골반이 커 보이고 키가 커 보이는 시각효과. ·브이네크라인: 허리가 가늘어 보이고, 배가 덜 나와 보이며, 골반도 작고 길이가 길어 보이는 시각효과	· 차이나칼라: 허리 가늘고 골반이 작아 보이는 시각효과 · 라운드네크라인, 스탠칼라, 테일러드칼라: 대체로 허리가 굵고 골반이 크고 키가 커 보이는 시각효과 ·브이네크라인: 목 가늘어 보이고, 허리 가늘어 보이며, 골반 작아 보이는 시각효과
하의스타일	· 팬츠차림이 스커트차림보다 굵고 넓어 보이며, 키가 더 커 보이는 시각효과.	· 팬츠차림이 스커트차림보다 목이 굵어 보이고, 스커트차림이 배가 더 나와 보이는 시각효과.	·팬츠가 스커트보다 허리가 더 가늘어 보이는 시각 효과.
문화*하의스타일*네크디자인	· 한국: 팬츠차림에 차이나칼라와 테일러드칼라일 때 하반신이 길고 키가 커 보이는 시각효과 · 미국: 팬츠차림에 라운드네크라인과 스탠칼라일 때 키가 더 커 보이는 시각효과	· 한국: 팬츠차림은 브이네크라인, 스커트차림은 차이나칼라일 때 어깨 넓어 보이는 시각효과 ·미국: 팬츠와 스커트의 네크디자인 시각효과 비슷.	
하의스타일*네크디자인		·스커트: 라운드네크라인일 때 허리가 가장 굵고 골반이 큰 시각효과, 브이네크라인일 때 허리 가늘고 골반이 작은 시각효과 · 팬츠는 네크라인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 비슷.	·팬츠: 스탠칼라일 때 가장 배가 덜 나와 보이는 시각효과 ·스커트: 차이나칼라일 때 가장 배가 덜 나와 보이는 시각효과
네크디자인*문화			·한국인: 네크라인변화에 따른 배돌출 정도 비슷하게 지각 ·미국인: 라운드네크라인이 배가 가장 돌출된다고 지각.

차림을 가장 선호하였고, 차이나 칼라에 스커트 차림을 가장 선호하지 않았다.

표준형에 대해 한국인은 테일러드칼라에 스커트차림을 가장 선호하였고, 라운드네크라인에 스커트차림을 가장 선호하지 않았다. 미국인의 경우는 테일러드칼라에 팬츠차림을 가장 선호하였고, 차이나칼라, 스탠칼라, 라운드칼라에 스커트 차림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형에 대해 한국인은 브이네크라인에 팬츠차림을 가장 선

Table 5. 한국과 미국의 의복디자인에 따른 체형별 선호도 차이

의복선호도 \ 체형 문화	마른형			표준형			비만형		
	한국	미국	t	한국	미국	t	한국	미국	t
차이나CL+스커트	2.27(bcd)	1.80(c)	1.46	2.40(de)	2.20(d)	.47	1.47(c)	1.67(cde)	-.80
스탠CL+스커트	2.80(ab)	2.53(b)	.76	2.73(bcd)	2.20(d)	1.54	2.20(ab)	2.27(bc)	-.18
라운드N+스커트	2.33(bcd)	2.27(bc)	.26	1.93(e)	2.13(d)	-.76	1.47(c)	1.53(de)	-.31
테일러드CL+스커트	2.53(bcd)	2.80(ab)	-.73	3.53(a)	4.07(ab)	-1.89	2.47(ab)	2.07(bcd)	1.28
브이N+스커트	2.13(cd)	3.00(ab)	-2.58*	2.47(cde)	3.40(c)	-2.80**	2.33(ab)	2.53(b)	-.49
차이나CL+팬츠	2.20(bcd)	2.40(bc)	-.65	2.60(bcd)	2.07(d)	2.38*	1.87(bc)	1.33(e)	2.32*
스탠CL+팬츠	2.60(abc)	2.60(b)	.00	2.60(bcd)	2.20(d)	.49	1.80(bc)	1.80(cde)	.00
라운드N+팬츠	3.07(a)	2.67(b)	1.36	2.33(de)	2.40(c)	2.07*	1.80(bc)	1.60(cde)	.92
테일러드CL+팬츠	1.93(d)	3.47(a)	-4.30**	3.00(abc)	4.60(a)	-9.79**	1.80(bc)	2.13(bcd)	-.85
브이N+팬츠	3.00(a)	3.00(ab)	.00	3.07(ab)	3.87(bc)	-3.94**	2.67(a)	3.33(a)	-2.37*
F	3.44**	3.80**		6.26**	18.34**		3.65**	7.53**	

*p<.05, **p<.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p<.05)
N=네크라인, CL=칼라

호하였고, 차이나칼라에 스커트차림과 라운드 네크라인에 스커트차림을 가장 선호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인의 경우는 브이네크라인에 팬츠차림을 가장 선호하였고, 차이나칼라에 팬츠차림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자극물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마른형의 경우 의복디자인 선호도에 대해 브이네크라인에 스커트차림과 테일러드칼라에 팬츠차림에서 문화에 다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미국인이 한국인보다 브이네크라인에 스커트차림과 테일러드칼라에 팬츠차림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형의 경우는 브이네크라인에 스커트차림과 차이나칼라에 팬츠차림, 라운드네크라인에 팬츠차림, 테일러드칼라에 팬츠차림, 브이네크라인에 팬츠차림에서 문화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즉 한국인은 미국인보다 차이나칼라에 팬츠차림과 라운드네크라인에 팬츠차림을 더 선호하였으며, 미국인은 한국인보다 브이네크라인에 스커트차림, 테일러드칼라에 팬츠차림, 브이네크라인에 팬츠차림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형의 경우는 차이나칼라에 팬츠차림과 브이네크라인에 팬츠차림에서 유이한 차이가 있었다. 즉 차이나칼라에 팬츠차림은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더 선호하였으며, 브이네크라인에 팬츠차림은 미국인이 한국인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체형 및 의복디자인에 따른 신체적 시각효과와 의복디자인 선호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마른체형의 경우,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자극물의 목이 굵거나 어깨가 넓으며 배가 나와 보이게 지각하는 편이었다. 차이나칼라는 목이 굵어 보이거나 배가 나와 보였으며, 브이네크라인은 목이 굵고, 어깨가 넓으며 배가 나와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테일러드칼라는 대체로 목이 가늘어 보였고, 어깨가 좁아 보였으며, 배가 덜나와 보이는 시각적 효과로 평가되었다. 또한 하의 스타일이 팬츠차림이 스커트차림보다 더 굵고 넓어 보이며 키가 더 커 보이는 시각적 효과가 있었다. 문화에 따른 차이에서 한국인은 팬츠차림에 차이나칼라와 테일러드칼라일 때 하반신이 길고 키가 더 커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미국인은 팬츠차림에 라운드네크라인과 스탠칼라일 때 키가 더 커 보인다고 하였다. 전체자극물 선호도에 대해 한국인은 라운드네크라인에 팬츠차림과 브이네크라인에 팬츠차림을, 미국인은 테일러드칼라에 팬츠차림을 가장 선호하였다. 각 자극물 선호도 차이에서 미국인이 한국인보다 브이네크라인에 스커트차림과 테일러드칼라에 팬츠차림을 더 선호하였다.

표준체형의 경우, 문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의 차이는 없었다. 네크디자인의 경우 라운드네크라인과 스탠칼라의 경우는 대체로 허리가 굵고 배가 나와 보이며, 골반이 커 보이고 키가 커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브이네크라인은 허리가 가늘어 보이며, 배가 덜 나와 보이고 골반도 작아 보이며, 키가 커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의스타일의 경우 팬츠가 스커트보다 목이 더 굵어 보였고, 스커트가 배가 더 나와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한편 문화와 하의스타일에 따라 네크라인의 시각적 효과가 차이가 있었는데, 한국인은 팬츠에 브이네크라인차림이, 스커트는 차이나칼라일 때 어깨가 가장 넓어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하의스타일과 네크디자인에 따라 시각적 효과가 달랐는데, 스커트는 브이네크라인일 때 가장 허리가 가늘고 골반이 작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전체자극물 선호도에 대해 한국인은 테일러드칼라에 스커트차림을, 미국인은 테일러드칼라에 팬츠차림을 가장 선호하였다. 각 자극물의 선호도 차이에서 한국인은 미국인보다 차이나칼라에 팬츠차림과 라운드네크라인에 팬츠차림을, 미국인은 한국인보다 브이네크라인에 스커트차림, 테일러드칼라에 팬츠차림, 브이네크라인에 팬츠차림을 더 선호하였다.

비만체형의 경우, 한국인보다 미국인이 자극물의 어깨가 더 넓어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편이었다. 네크디자인의 경우 차이나칼라는 허리가 가늘고 골반이 작아 보이고, 브이네크라인은 목과 허리가 가늘어 보이고 골반이 작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의스타일과 네크디자인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어 팬츠는 스탠칼라일 때, 스커트는 차이나칼라일 때 가장 배가 덜 나와 보이는 시각효과가 있었다. 전체자극물 선호도에 대해 한국인과 미국인 모두 브이네크라인에 팬츠차림을 가장 선호하였다. 각 자극물의 선호도 차이에서 차이나칼라에 팬츠차림은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더 선호하였으며, 브이네크라인에 팬츠차림은 미국인이 한국인보다 더 선호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중년여성은 네크라인과 하의스타일변화에 따라 체형별 수트의 시각적 효과를 다르게 파악하였고, 자극물의 의복선호도 또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네크라인 및 하의스타일변화에 따른 중년여성의 적절한 의복차림은 보다 효과적인 외모를 만드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복의 시각효과와 선호도에 대한 문화적 차이의 결과는 미국 중년여성소비자의 미적 지각을 이해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그들을 대상으로 한 의복디자인 기획에도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의복의 이미지 지각에 연구대상자의 특성도 영향력 있는 변인인데 체형이 시각효과의 변인으로 사용되었으나 연구대상자의 체형을 고려하지 않은 점과 한국인과 미국인의 체형이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차후의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미국인 각 문화권에서 인지되어지는 체형을 고려한 자극물을 개발하여 한국과 미국 문화권 모두에 만족되어지는 체형별 의복디자인 파악에 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된 연구임(KRF-2006-013-G00040).

참고문헌

강혜원. (2003).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pp.57-88.

권숙희. (1998). 18-54세 여성의 연령 집단별 체형 차이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5), 17-27.

김영자. (1998). *복식미학의 이해*. 서울: 경춘사, p.103.

김일분, 유태순. (1999). 의복이미지유형과 디자인요소와의 관계. *복식*, ***45***, 103-119.

김효숙, 최창석, 이은실. (2003). 의복스타일과 색이 신체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9), 135-148.

남윤자, 이승희. (2001). 한, 미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의 만족도에 관한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5***(4), 764-772.

박우미. (2000). 신체에 대한 의식과 만족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여대생의 비교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5), .736-747.

박종희, 류숙희. (2004). 중년여성의 체형과 신체만족도에 따른 테일러드 재킷의 이미지 평가 및 선호도 : 칼라형태를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3), 367-376.

위은아, 김옥진. (2001). 중년여성의 수트착용 형태미를 위한 형태구성요인의 조합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5), 726-740.

위은아, 박우미. (2003). 중년여성의 신체부위 인지유형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착의 의복 스타일. *한국의류학회지*, ***27***(9-10), 1112-1123.

이미연. (1999). *디자인 요소에 따른 웨딩드레스의 이미지 지각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미정, 김준범, 이인자. (1997). 의복디자인 요소 변화에 의한 착시현상이 얼굴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8), 1287-1296.

장휘숙. (1996). *여성심리학*. 서울: 학지사, pp.291-293.

정명숙. (1994). *성인 여성 체형의 분류 및 연령층별 특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5-95.

조훈정, 손영미. (2002). 앙상블 수트의 의복형태구성요인의 시각효과에 대한 실험연구(제1보) : 노년층의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52***(6), pp.51-69.

최유미, 손희숙. (1997). 중년기 여성의 실제체형과 신체의식에 관한 연구. *복식*, ***31***, 119-130 .

한정숙, 류숙희. (1997). 테일러드 재킷 디자인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 : 칼라길이, 단추수, single/double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1***(8), 1376-1386.

Horn, J. M. & Gurel, M. L. (1981).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 pp.141-154.

Lennon, J.S. (1988). Physical attractiveness, age, and body type. *HERJ*, ***16***(3), 195-203.

Lennon, J.S. (1997). Physical attractiveness, age, and body type : further evidence. *CTRJ*, ***15***(1), pp.60-64.

구장회. (2007, 1. 11). 글로벌 소싱 전시회로 발돋음. 매일신문. 자료검색일 2007, 12. 12, 자료출처 http://www.fi.co.kr

제5차인체치수조사(2004) 대한인간공학연구회, 자료검색일:2006, 9 자료출처: www.sizekorea.kats.go.kr

Size USA Report Released(March 1. 2004) 자료검색일:2006, 8 자료출처: www.sizeusa.com

(2008년 5월 13일 접수/ 2008년 6월 9일 1차수정/ 2008년 11월 2일 2차수정/ 2008년 11월 27일 게재확정)